

설교 요약 (20-04-05)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 20:24-29)

세상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급격히 늘면서 우리는 어느때 보다도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통쾌하게 부서뜨린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 또한 누구든지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예고 하셨지만, 그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도, 이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야 비로소 믿고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속에 담겨진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평생 그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이 전능하신 목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이야말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롬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지막에 찾아올 죽음도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 최종 결론은 승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